

완도군, 적조·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전

드론 활용 적조 예찰 강화...대책위·해역별 자율방재단 구성 머드스톤 47t·황토 2만4000t 확보...고수온 예방 차광막 지원

완도군이 적조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대책위·해역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적조대책위원회와 해역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등 적조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적조 방제 장비와 황토 적지장을 점검하고 양식장 사육관리 요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어민들에게 배부했다.

해역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어업인 연락처 정비 등 준비를 마쳤다.

해양수산과학원, 완도해양경찰과 함께 선박·드론 등을 통한 하늘과 바다 등 입체적 예찰로 적조 발생 조기 예보를 강화한다. 적조 발생 상황을 문자로 신속하게 발송한다.

적조 방제용 액화산소와 머드스톤 47t, 황토 2만 4000t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도군은 또 올해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어장 관리 요령 홍보 등 예방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온 23도부터 먹이량을 50%로 줄이고, 수온 25도 이상부터는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지난해보다 2~3도(7월 현재) 낮은 편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어촌계, 137어가에 1226개의 차광막을 지원했다. 차광막을 설치하면 자외선 조사량을 낮춰 산란 지면에 도움을 주며 생체 스트레스를 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적조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조 방제선 등이 적조 발생 해역에 황토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관계자는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적조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업인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연안 사고위험 관심' 발령

목포해경, 다음달 말까지

목포해양경찰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유명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5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가운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특정 시기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익수·추락사고 가능성, 안전사고 반복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발령, 그 위험성을 피서객들에게 미리 알려 사고예방을 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7월-8월) 기간은 1년간 발생하는 연안 안전사고의 30%가 집중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 개장으로 물놀이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관광객들이 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녹색관광 벨트'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개통

무안군 179억 투입 8.7km 구간

무안군은 4년간 국비 179억원을 들여 건설한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을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길은 도로 폭 8m로 청계면 청수리(국도 1호)부터 몽탄면 대치리(군도 34호)까지 총 8.7km다. 신설구간 4.1km, 선형개량구간 0.5km, 생태이동통로 70m, 쉼터공원 6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만남의 길은 무안군 50년 숙원으로 몽탄과 청계면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넘어 면 소재지와 농공단지, 목포대학교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또 승달산 등산로, 영산강 강변도로, 분청사기명장 전시관, 식영정, 느리지 한반도 공원 등을 잇는 녹색관광벨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향후 영산강과 승달산, 갯벌해안을 연계한 등산, 걷기, 자전거, 트레킹, 마라톤, 오토캠핑 등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할



무안군이 국비 179억원을 투자해 영산강~승달산 8.7km 구간 만남의 길을 지난 27일 개통했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과 함께 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국비 100%를 지원받아 해안관광일주도로로 건설 중인 노을길도 8월 초 준공된다.

망운 조금나루-해제 봉오제 간 10km 구간의 노을길은 무안군의 관광, 교통, 산업, 물류의 역할을 특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자녀 2명 이상 상하수도료 감면 완도군,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완도군 약 1400여 가구가 월 7760원(상수도 5830원·하수도 1930원), 연 9만3120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이나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지역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경로당·노인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라돈 초과 검출' 영광 불갑약수터 음용 전면 금지...다음달 초 철거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Radon)'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영광군 불갑산 약수터시설이 전면 철거된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질검사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된 불갑약수터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수터는 지난 17일부터 음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영광군은 지붕 비가림 시설 등을 다음달 초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불갑약수터는 지난해 10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1ℓ당 라돈이 기준치(148Bq/l)를 훨씬 웃도는 220.4Bq(베크렐)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8Bq/l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검사부터 매월 큰 편차를 보이기 시작됐다.

영광군은 라돈 검출량이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하자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시켜 끓여서 마실 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약수터에 설치했다가 약수터 이용자의 건강을 염려해 음용을 전면 중단시켰다.

국가별 라돈 기준·권고치는 미국 148Bq/l, 스웨덴 100-1000Bq/l, 노르웨이 500Bq/l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지침에 따라 라돈 저감 방법을 적용해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이용자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 폐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통합물관리정책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지난 28일 목포·무안·신안지역 농업인단체 대표들을 명예지사장으로 추가 위촉하고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새로 위촉된 명예지사장은 한국생활개선회 조정숙 목포시연합회장과 문영순 무안군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 서영춘 무안군연합회장과 김영준 신안군연합회장 등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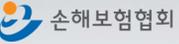
무안신안지사는 이날 운영대의원 회의에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통합 물관리 정책의 농업용수 추진 방향과 절약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수 관리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최완일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은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해 공사와 농업인단체가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했다"며 "소중한 농업용수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용수 절약을 생활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